DBpia

# 한류, 서양음악, 대중음악 & 가치관의 변화

The Impact of Korean Wave on the Social Status of Korean Popular Musicians

저자 (Authors)
황옥곤
Okon Hwang

출처 (Source)
대중음악 , (5), 2010.5, 10-24 (15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5), 2010.5, 10-24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10432

APA Style
황옥곤 (2010). 한류, 서양음악, 대중음악 & 가치관의 변화. 대중음악, (5), 10-24.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233.206.***
2018/04/13 09:4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대중음악
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류, 서양음악, 대중음악 & 가치관의 변화*

황옥곤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교수)

1. 들어가는 말
2. 한류와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3. 한국에서의 서양음악
4. 유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한류로 인해 한국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 내 서양음악인들의 존재는 점점 더 미흡해진 것처럼 보인다. 서양음악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적 투자와 음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다. 한류의 영향과 음악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근현대 한국 역사에서 서양음악이 다른 음악에 비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양반화 지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드니스 레트(Denise Lett)는 한국인의 지위 추구가 현대 국가 건설 원동력의 근원이라고 분석했지만, 조선시대의 양반 같은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듯하다. 한류가 한국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지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한국 사회 지반의 유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핵심어: 한류, 양반화, 가치체계

* 이 글은 *Southeast Review of Asian Studies*(v. 31, 2009)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No 'Korean Wave' Here: Western Classical Music and the Changing Value System in South Korea"(pp. 56~68)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한국의 문화 변화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관조하려는 시도이다. 한류가 한국 내 음악인의 사회적 지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필자는 서양음악을 대중음악과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고, 역사적·사회적 변천을 배경으로 한국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점검해보겠다.

## 2. 한류와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한국의 음악 양상은 크게 서양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국악으로 삼등분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한류가 어떻게 대중음악계와 서양음악계에 영향을 끼쳤나에 대해 국한하도록 한다.

한류(Korean Wave)가 세계적으로 한국문화 유포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의하면 한류의 파급지역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터키, 중남미, 미국, 중동, 유럽, 미국, 호주 등 글로벌하다.[1] 한국이 현재 문화상품 수출의 양으로 볼 때 세계 10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상의 배경에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겨울연가>나 <대장금> 등등의 문화상품은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한 텔레비전 드라마 등과 함께 영화, 음식, 심지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레인(Rain)이라고 알려진 가수 비가

1) http://en.wikipedia.org/wiki/Korean_wave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2007년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포함될 정도로 한류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파급과 함께 이제는 한류라는 단어가 대중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재벌 그룹의 활동에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한류의 존재가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관광 장려 비디오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에서는 "한류 체험(Korean Wave Experience)"이라는 명칭으로 한류가 중요한 관광자원임을 부각시켰다.[2)]

비록 한류가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영역뿐 아니라 한국 수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나, 상대적으로 서양음악 영역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 현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인과 서양음악인들은 지명도나 유명도를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한 차이점을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조명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한류라는 단어는 1999년 중반에 북경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낸 것으로서[3)] 필자가 1990년도 초에 한국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한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필자의 관심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통기타 음악에 있었고 필드워크의 일환으로 당시 유명하던 여러 가수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송창식과 <열린음악회> 녹화현장 분장실에서 함께 이야기한 내용은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느꼈다. 송창식에 따르면, 예전에는 서양음악가들과 함께 출연하는 무대(venue)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간

2) http://english.visitkorea.or.kr/enu/AK/AK_EN_1_2_1.jsp#

3) http://en.wikipedia.org/wiki/Korean_wave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혹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서양음악인들은 대중음악인들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이렇게 서로 무대도 공유하고 인사말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다.

송창식은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가장 큰 별 중 하나였지만, 그러한 큰 별조차도 서양음악인에게 푸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영남도 『넌 노래 부르지 마』라는 책에서 대중음악의 천대받는 위치에 대해 언급했다.[4] 조영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대중가수로 데뷔했다. 그의 책을 일부 옮겨보자. "말하자면 나는 고급 음악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급 음악 동네를 해갈대고 다녔던 것이었다"(75쪽). "당시만 해도 음대생으로서 한참 저급한 텔레비전 쇼에 나간다는 것이 정정당당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내린 몇 가지 안 되는 용단 중의 하나였다"(154쪽). 조영남의 학교 후배인 필자도 소위 말하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괴리에 대해 나름대로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필자는 서울음대 기악과 피아노 출신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음대생이 대중음악에 손을 대면 정학이나 퇴학감이라는 말들이 학생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열린 음악회> 무대 뒤에서 송창식이 대중음악인들의 지위 향상에 대해 언급할 때 필자도 그 상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초의 한국 문화 형태는 20년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것 같다. 밥 딜런(Bob Dylan)의 노래 중 <The Times They are a-changin'>이라는 노래의 일부 가사에서 "For the loser now/ Will

4) 조영남, 『넌 노래 부르지 마』, 서울: 전원, 1993, 75·154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be later to win/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라고 했듯이 왕년의 패자가 현재의 승자가 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현대의 문화동향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면 대중문화인들의 입김이 단지 문화계뿐 아니라,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막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중음악인들이 서양음악인들의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서양음악인뿐 아니라 정치인, 자본가 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문화인들의 후광을 이용해볼까 궁리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음악인의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비록 한국 대중음악인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면서 눈부신 조명을 받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한국 음식과 한국어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의 서양음악인들은 아직까지도 한류의 부대효과를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중음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천대를 받았던 영역이었고,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자본의 유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한 대중음악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서양음악의 교육과 조직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투자했는지 비교해본다면, 현재의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 3. 한국에서의 서양음악

여기서 잠시 한국에서의 서양음악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유선은 1885년을 서양음악이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해라고 규정지었다.[5] 그해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 선교사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그 다음 해에 경신학당과 배제학당이 설립되어 음악교육의 내용으로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로 기독교와 연관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러한 교육기관들에서는 서양음악이 음악교육의 기본으로 설정되었다. 음악의 다른 영역들, 즉 국악이나 대중음악은 문화적으로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으나, 양악은 도입 초기부터 서양에서 왔다는 이유,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기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았고 세련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녀교육의 일환으로 서양음악 교육을 필수과목처럼 취급하게 되었고, 피아노 학원을 대표로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동네마다 침투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인가·무인가 피아노 학원의 수가 10만 개에 달했다.[6]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서양음악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에,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성적을 올리고자 피아노 학원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서양악기 과외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한국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양음악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음대 졸업생이 배출된다. 1993년의 경우 70여 개 대학에서 서양음악 전공자가 약 4,000명 배출되었으며,[7] 1997년도 대입 전형자료집에 의하면 2만

---

5) 이유선, 『한국 양악 100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1985, 21~28쪽.

6) 박은자, 「피아노 교습소과 관인학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8쪽.

7) 김춘미·권오향·이희경, 「음악실기 전문교육 개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1993, 221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5,000명의 학생이 4년제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지원을 했다고도 한다.[8] 1997년의 통계를 보면 93.1%의 교수직이 서양음악 분야에 치중된 반면 국악 분야 교수직은 6.9%밖에 안 되었다. 동년도 학생 지원율을 보면 90.2%가 서양음악 분야에 지원한 데 반해, 국악 지원자는 9.8%에 지나지 않았다.[9]

이러한 한국 내의 음악교육에 힘입어, 한국인들은 서양음악을 본고장인 서양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도 크다. 미국의 큰 음악대학 중 하나인 맨해튼 음악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재학생 중 약 20%가 한국 출신이었다고 한다.[10] 줄리아드 학교(Juilliard School)의 경우 예비학교 학생의 5분의 2, 대학교와 대학원 학생의 6명 중 1명이 한국학생이었다.[11] 이러한 통계가 대변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서양음악 교육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은 중요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지금 세계의 서양음악계를 둘러보면 한국 출신의 서양음악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서양음악에 대한 체계적 투자가 이뤄져왔음에도 서양음악은 한국 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표면상으로만 간신히 접목되어 있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매상이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한국에 진정한 서양음악 청취자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서양음악회들이 난무한다고 하나, 대다수의 음악

8) 디딤돌 봄봄 입시 정보팀, 『'97대입 전형 자료집』, 서울: 디딤돌, 1997.

9) 양지영, 「음악적장의 사회적 구성: 음대 지망 고교생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0) 맨해튼 음악학교 직원과 전화 인터뷰, 1998.

11) 이상만, 「근대 외래음악의 유입과 한국적 수용」, 『맹사성의 달 기념 국악학 학술회의: 외래음악의 한국적 수용』, 1999, 140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회들은 연주자가 자비를 내고 벌이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입장료가 명시된 티켓을 발행하지만 그것은 대개 형식일 뿐 알음알이로 공짜로 배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즉,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등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음악회들은 연주자들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행사이지 돈을 벌게 만드는 행사는 아니다. 연주자들은 이러한 음악회들을 경력의 발판으로 삼아 최종 목적, 즉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나, 교육기관에 적을 두지 않는 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음악인들이 연주회를 열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CD를 발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국내 서양음악인들의 CD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혹시 제법 규모가 큰 레코드 CD 상점에서 서양음악 CD를 취급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연주자들의 CD를 가져다놓을 뿐이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의 CD를 찾기는 힘들다. 물론 국내 연주자들도 CD를 제작하기는 하지만, 냉혹한 시장경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점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은 대개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알음알이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식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CD 제작도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돈을 쓰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필자가 한국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아주 존경받는 피아니스트가 CD를 출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그 CD를 구하려고 서울의 크다고 하는 음악상점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피아니스트를 직접 만나서야 CD를 구할 수 있었고, 그 피아니스트는 한국의 척박한 실태에 대해 개탄했다. 필자가 CD를 찾으려고 돌아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녔을 때 만난 한 상점 주인은, 한국에서 연주가들이 CD를 내는 것은 허영심과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주가들이 내한공연을 할 때 음악당들을 꽉 메우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 청중들이 진정으로 서양음악을 사랑하는 청중(true listening audience)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세련되었는지를 남과 자기 자신에게 과시하려는 행동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비록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고 그 프로필이 막강하다고는 하나,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문화의 일부로 내면화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서양음악을 진정한 예술행위로 여기면서 그러한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음미한다면, 대중음악회를 가기 위해 티켓을 구입하고 대중음악 CD를 구입하는 것처럼 돈을 내고 음악회에 갈 것이고 CD를 구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의미는 예술로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겉치레(social and cultural trappings)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존경받는 음악가라도 순수음악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고 교육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 4. 유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어찌 보면 한류는 대중음악의 대중성과 서양음악의 무능력 사이의 간격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분야들은 한류에 동참해서 나름대로 덕을 보고 있는 데 비해 서양음악은 그렇지 않은 것을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지켜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서양음악과 대중음악이라는 행위나 개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서양음악은 우월하게 여겨지고 대중음악은 천대를 받았다. 이러한 차별의 근원은 유교사상에 있지 않나 한다. 유교사상이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 것처럼,[12] 유교사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교가 현대 한국에 지금도 끼치고 있는 영향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지폐만 보아도 자명하다. 한국 지폐 네 가지 중 세 가지에 유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초상화—즉, 이황·이이·신사임당의 초상화—가 찍혀 있다. 일제시대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출생신분을 중시하는 전통사회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실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현대 계급사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과거의 양반 같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스에나리 미치오(Suenari Michio)는 이러한 현상을 유교에 토대를 둔 양반화(yangbanization)라고 칭한다.[13] 이 양반화 과정에서 서양음악은 사회적 지휘 향상에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

비록 드니스 레트(Denise Lett)는 한국인의 지위향상 추구가 한국 현

12) de Bary, W. T., 「Confucianism and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Crisis」,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5~46쪽. 김경동, 「유교와 동아시아의 근대화」,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515~516쪽.

13) Michio, Suenari, "The Yangban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Natures of Confucianism*(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경기도: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4, 575~595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대사회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밝혔으나,[14]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지 않았나 싶다. 과거에는 선비, 즉 사회적 지위나 학식은 많으나 부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가치기준이 현저히 달라진 다른 세상이 되었다. 한류의 공헌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분분하겠으나 가장 눈에 띄는 공헌은 금전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한류 열풍을 성공적으로 탄 개인은 막대한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와 함께 대중문화인도 더 이상 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주의적·유물주의적 사고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2008년에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초등학생 중 상류층 가정에 속한 자녀들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중류층 가정 자녀들은 연예인, 하류층 가정 자녀들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그러한 특정 직업을 원하는 이유는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5] 이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어린이들의 원대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으니까.[16]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유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중음악의 경우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실용음악학과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서점의 책꽂이가 실용음악 교재로 차 있는 것을

14) Lett, Denise, *In Pursuit of Status: The Making of South Korea's "New" Urban Middle Cla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15)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121173010

16) http://www.ilyo.co.kr/enter/humor/view.asp?seq=3276&bigo=0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보면, 한국 사람은 대중음악이라는 자유분방한 영역에서조차 제도적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류에 대한 열정과 지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배용준·비·이영애 등 한류 스타를 비롯한 대중문화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동경을 감안했을 때,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서양음악인들이 한류 열풍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 대중음악인들과 서양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유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은 포스트모던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류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지반 사이에 박혀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 참고문헌


김경동, 「유교와 동아시아의 근대화」,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춘미·권오향·이희경, 「음악실기 전문교육 개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1993.

디딤돌 봄봄 입시 정보팀. 『'97대입 전형 자료집』, 서울: 디딤돌, 1997.

박은자, 「피아노 교습소과 관인학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양지영, 「음악적장의 사회적 구성: 음대 지망 고교생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상만, 「근대 외래음악의 유입과 한국적 수용」, 『맹사성의 달 기념 국악학 학술회의: 외래음악의 한국적 수용』, 주최: 국립국악원, 1999.

이유선, 『한국 양악 100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1985.

조영남, 『넌 노래 부르지 마』, 서울: 전원, 1993.

de Bary, W. T., 「Confucianism and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Crisis」,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Lett, Denise, *In Pursuit of Status: The Making of South Korea's "New" Urban Middle Cla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Michio, Suenari, "The Yangban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Natures of Confucianism(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경기도: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4.

Miller, Terry E. & Andrew Shahriari, *World Music: A Global Journey,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9.

http://en.wikipedia.org/wiki/Korean_wave

http://english.visitkorea.or.kr/enu/AK/AK_EN_1_2_1.jsp#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12117301023626&newssetid=1352

http://www.ilyo.co.kr/enter/humor/view.asp?seq=3276&bigo=0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Abstract

# The Impact of Korean Wave on the Social Status of Korean Popular Musicians

Okon Hwang (Professor of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USA)

The Korean Wave refers to the surge in popularity of South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since the 21st century. Due to the Korean Wave, the status of Korean 'popular' musicians has been elevated significantly while Western 'art' musicians have become increasingly marginalized. This change is quite surprising since a considerable amount of educational capital has been invested toward the systematic grooming of 'art' musicians, while 'popular' musicians have historically been treated with disrespect and sometimes contempt.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and the shifting status of musicians indicate that a fundamental change may be taking place in the South Korean value system. I believe that historical structural forces that assured the cultural supremacy of Western art music within Korea (which placed popular music at the bottom of the cultural hierarchy) were due to the Korean's zeal to be like the yangbans(the traditional ruling class) of the former era. Although Denise Lett identified the Korean's pursuit of status to be like the yangbans as one of the major forces that shaped the modern South Korean society, the era when status was perceived as the ultimate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goal may finally be over. B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Korean Wave on the status of musicians, my paper intends to demonstrate that this phenomenon may metaphorically serve as a wedge driven into the crack created by the shift of the old and the new cultural and social tectonic plates of South Korea.

Keywords: Korean Wave, Status, Yangbanization, Value system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